

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93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6년 8월 14일
- 라. 회부일자 : 2016년 8월 16일

## 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산업진흥, 중소기업의 육성,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디지털산업 지원 등 경제산업분야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, 서울신용보증재단, 서울디지털재단을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경제산업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 : 서울산업진흥원, 서울신용보증재단, 서울디지털재단

나. 주요사업

- 서울산업진흥원 : 전략산업 육성, 중소기업 지원시설 관리운영, 국내외 판로 개척, 창업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
- 서울신용보증재단 : 소기업·소상공인의 신용보증,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- 서울디지털재단 : 정보통신기술 정책연구, 사물인터넷·빅데이터 기반 구축, 디지털 교육 등 디지털산업 지원사업

다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으로 서울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-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·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첨단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지원을 위한 서울경제 활성화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
-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
○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2018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<sup>1)</sup>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경제산업 분야의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, 서울신용보증재단,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미리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

### 나. 경제산업 분야의 출연기관 현황

- 경제진흥본부는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지원 등 서울시의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에 출연기관들을 설립·운영하고 있음.
- 현재 경제진흥본부 산하의 출연기관은 총 3곳으로 서울산업진흥원, 서울신용보증재단,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하여 매년 출연금을 편성·지원하고 있음.

#### <최근 3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>

	2015년	2016년	2017년
서울산업진흥원	288억 1,309만원	569억 9,785만원	555억 5500만원
서울신용보증재단	321억 6,000만원	190억원	65억 500만원
서울디지털재단	-	19억 4,513만원	80억 3,156만원

1)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서울산업진흥원은 1998년에 설립되어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형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서울시 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-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에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음.
- 서울디지털재단은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.

#### 다. 종합의견

-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업무의 성격이 경제진흥본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기능적으로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.
- 또한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의 특성상 서울시의 출연금 없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점

을 감안하면 출연 동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.

- 아울러 첨단 산업인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시에 계획되었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업과 조직의 확대가 예정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.
- 또한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등 디지털재단의 업무영역이 서울시 정보기획단 등과 겹치고 있어 유사·중복 사업의 추진으로 출연금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며 재단 자체의 수입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.